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주변의 이방인 양공주 - 거제도과 한산도 지역주민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

박 정 석*

1. 들어가는 말
2. '양공주'의 등장 배경
3. 거제도 포로수용소 주변의 양공주
4. 저구리 포로수용소 주변의 양공주
5. 용초도·봉암도 포로수용소 주변의 양공주
6. 맺음말

<국문초록>

포로수용소와 양공주는 한국전쟁을 표상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포로수용소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팔았던 양공주는 '방랑자'에 가까운 이방인이었다. 양공주가 머물렀던 공간은 기존의 마을보다 소개민 수용소 혹은 피난민 수용소 주변이 대부분이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설치와 함께 들어온 양공주들은 집단으로 기거하거나 모포 하나를 들고 이곳저곳에서 개별적으로 영업하였다. 이후 포로수용소가 분산되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 주변에 밀집되어 있었던 양공주도 미군을 따라 분산하였다. 주거 공간이 부족했던 저구리 포로수용소 주변에서는 소개민과 양공주가 함께 기거하면서 공생관계를 형성하였다.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용초 마을에서는 마을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도시에서 양공주를 데리고 와서는 미군을 상대로 영업하도록 주선하였다. 지역사회에 낯선 이방인 양공주가 유입되었던 초기 지역민들은 그들을 경원시하였지만, 전시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

*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hansan721@mokpo.ac.kr)

서 지역민과 양공주 사이의 사회적 및 물리적 거리가 점차 줄어들었다. 휴전 협정 체결과 함께 포로수용소가 폐쇄되면서 포로와 미군, 양공주 등 이방인들은 모두 떠났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포로수용소는 흔적으로, 양공주는 기억으로만 남았다. 거제도와 한산도 주민들이 기억하는 양공주는 엄혹했던 전쟁 시기에 호구지책으로 몸을 팔았던 '외지'의 낮은 여성들이었다.

* 주요어: 한국전쟁, 양공주, 포로수용소, 거제도, 한산도

1.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은 '포로들의 전쟁'이라 일컬을 정도로 많은 포로를 양산하였다. 포로들이 급증하자 1951년 1월 한반도의 남쪽 거제도에 거대한 포로수용소를 건설하였다. 휴전 협상을 전후로 포로들의 저항과 폭력이 난무하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포로 관리와 통제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1952년 5월부터 대규모로 수용되었던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포로들을 분산하면서, 소위 '친공'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거제시 남부면(당시에는 동부면) 저구리와 통영시 한산면 용초도(지금의 용호도) 및 봉암도(추봉도)에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지역에는 수많은 양공주가 들어왔다. 양공주는 '미군 위안부' 혹은 '기지촌 여성'이라는 공식적 호명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색시' 혹은 '양갈보'라는 폄하된 이름으로 불렸다.¹⁾

거제도와 한산도 지역에서 포로수용소 주변을 맴돌며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팔았던 양공주들은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대개 허름한 가옥이나 야산 혹은 개울가 등지에서 미군을 상대하였다. 이곳의 양공주들은 '집창촌' 혹은 '기지촌'과 달리 소규모로 혹은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주민들에게 양공주라 불렸던 이들은 초기에는 전문 업주를

1) 본문에서는 '미군 위안부' 혹은 '기지촌 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주민들의 구술 그대로 '양공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구술에서는 양공주와 함께 '양갈보'라는 말도 함께 쓰이고 있었다.

매개로 포로수용소 주변 민가에 방을 얻어 놓고 '영업'을 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양공주들이 늘어나면서 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장소를 불문하고 영업이 이루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군과 양공주가 접선하는 고정적인 '장소'가 생겨났다.

지역주민들의 시각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을 매매하는 양공주는 '우리'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외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었다. 양공주는 지역주민의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양공주는 어머니나 누이가 아닌 파마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성을 파는 낮선 여성이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전장 아닌 전장이 되어버린 섬 지역에서 양공주는 민족의 치욕이나 부르주아 남성의 부도덕한 성의 희생자라기보다는 전시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직업적으로 몸을 팔고 있는 '타자'였다. 지역주민들에게 양공주는 '이방인'이었지만, 환대받았던 손님은 아니었다. 이들은 전시라는 예외적 상태에서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되면서 점령군처럼 몰려왔던 미군들을 상대로 삶을 영위하려 어쩔 수 없이 성을 파는 여성들이었다.

최근까지 양공주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 양공주를 다루고 있는 연구 대부분은 소설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²⁾ 소설에 등장하는 양공주의 표상은 가족을 위해 성을 판매하는 비극적인 여성 혹은 자신의 허영과 사치를 위해 정조를 파는 팜므파탈로 묘사된다. 소설 속 양공

2) 강경화, 「양공주의 자기인식 양상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7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5~38쪽; 김연숙, 「'양공주'가 재현하는 영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연구』 3, 한국여성연구소, 2003, 121~156쪽; 김은하, 「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화학회, 2003, 158~170쪽; 김준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 『한국민족문화』 5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41~68쪽; 박선애, 「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279~300쪽; 변화영, 「한국전쟁의 문신, 흑인 혼혈인과 양공주」,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95~320쪽; 오은영, 「강신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양공주'의 형상화 연구」,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61~297쪽; 임은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양공주' 모티브의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성」, 『한국문예비평연구』 5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241~267쪽; 정재립,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457~478쪽.

주는 위험하고 불결한 전염체처럼 다루어지거나 순결한 민족의 희생양으로 재현되었다.³⁾ 소설 이외에도 영화⁴⁾ 혹은 사진⁵⁾에 재현된 양공주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양공주 연구는 주로 미군기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 혹은 집창촌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⁶⁾ 양공주의 존재는 기지촌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필요악으로 간주되었다. 양공주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미군을 위안하는 여성’이었다.⁷⁾ 기지촌 양공주는 대개 외국 군인에게 몸을 팔아 민족적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혹은 비천하고 불쌍한 희생양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기지촌의 양공주와 더불어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성매매 제도를 추적하기도 하였다.⁸⁾

이상의 흐름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전쟁 시기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거제도과 한산도 지역주민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당시 주민들이 조우했던 양

-
- 3) 허윤, 「1950년대 양공주 표상의 변전과 국민되기」, 『어문연구』 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259쪽.
- 4) 김윤지, 「도구화된 타자, 기지촌 여성과 한국영화」, 『영화교육연구』 14, 한국영화교육학회, 2013, 99~133쪽.
- 5) 박종현·민병욱, 「분단 한국의 속죄양」, 『기초조형학연구』12(4), 한국기초조형학회, 2011, 151~159쪽; 박종현, 「침묵의 디아스포라」, 『기초조형학연구』17(1),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231~243쪽.
- 6) 김현선(역음),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 아카데미, 2013. 김희식,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의 기원」,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255~302쪽; 문, 캐서린 H. S.,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Kim, Elaine & Chungmoo Choi, *Dangerous Women*,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177~215쪽;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한국사회학』 49, 한국사회학회, 2015, 1~33쪽; 백일순, 「왜 미군 위안부는 잊혀져야 했는가?」, 『로컬리티 인문학』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39~76쪽; 이나영, 「기지촌의 공교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한국여성학』 23(4), 한국여성학회, 2007b, 5~48쪽; 이나영,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한국여성학』 24(3), 한국여성학회, 2008, 77~109쪽; 이나영,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여성과 평화』 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0, 170~197쪽; 이나영, 「기지촌 여성의 경험과 윤리적 재현의 불/가능성」, 『여성학논집』 28(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1, 79~120쪽; 정근식 외, 『주한미군기지촌의 유산과 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2020.
- 7) 이나영, 2007b, 6쪽.
- 8) 박정미,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사회와 역사』 124, 한국사회사학회, 2019, 265~307쪽; 이나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a, 39~76쪽.

공주의 모습을 추적 조사하였다.⁹⁾ 구체적으로 소설이나 영화로 재현된, 텍스트 속에 간혀 있는 양공주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기억하는 이방인 양공주의 모습을 분석하고 있다. 섬 지역에서 양공주들은 기존의 마을보다 임시로 설치되었던 소개민 수용소 또는 피난민 수용소 주변의 비일상적 공간을 거처로 삼았다. 즉,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양공주는 기지촌이라는 별도의 공간 혹은 시설을 근거지로 영업했던 양공주가 아니라 피난민과 소개민, 그리고 지역주민이 혼재했던 포로수용소 주변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몸을 팔아야만 했던 ‘이방인’이다. 현재의 시공간에서 기억되고 있는 과거 이곳의 양공주는 포로수용소와 함께 등장했던 전쟁의 상흔이라고 할 수 있다.

2. ‘양공주’의 등장 배경

미군을 대상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양공주’, ‘양갈보’, ‘양색시’, ‘유엔마담’, ‘유엔사모님’, ‘유엔레이디’, ‘양키 창녀’, ‘양키 마누라’, ‘서양공주’ 등으로 불려 왔다.¹⁰⁾ 양공주라는 호칭에 앞서 ‘유엔 공주’와 ‘양갈보’가 있었다. 양갈보라는 호칭은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진주와 함께 생겨났다. 휴전 이후 한반도에 미군이 장기 주둔하면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미군기지촌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49년 한국전쟁 직전까지는 생성되었다.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들에게 휴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 군락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945년 9월 부평에 최초의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동시에 기지촌이 형성되었다.¹¹⁾

미군기지와 함께 등장했던 ‘양갈보’는 미군 주변을 맴돌며 몸을 파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이었다. ‘양갈보’가 ‘대책 없이 공창제도를 실시한 당국’과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미군(혹은 유엔군)을 대상으로 몸을 파는 ‘창녀’들이며 여권을 포기한 윤리적

9) 한산도와 거제도에서의 현지조사는 총 다섯 차례(2019.06.22.~06.26., 2019.12.19.~12.28., 2020.08.17.~08.22., 2021.01.11.~01.12., 2022.01.17.~01.20.)에 걸쳐 진행하였다.

10) 강정구, 앞의 논문, 425쪽.

11) 한만송,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국립민속박물관, 2016, 16쪽.

전략자라는 뜻하는 말로 호명하였다.¹²⁾ 즉 양갈보라는 호칭 이면에는 해방 직후 한반도에는 ‘점령군 미군’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으며, 반미 색채가 짙었던 시대적 상황과 정서를 대변하고 있었다. 미군이 점령군처럼 진주하고 있었던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반미 감정이 거세었다. 당시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의 통일 혹은 완전 독립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비판받았다.¹³⁾

양갈보라는 호칭과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1948년 분단 정부 수립 이후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 양갈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화했다기보다는 양갈보가 상대하는 서양인 즉 미군에 대한 배척 운동을 경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양갈보를 배척하는 행위가 곧 미국을 배척하는 운동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한 주류세력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배층에서는 양갈보 배척 운동이 미군에 대한 대중들의 기피 현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배제한 채 좌익 세력의 책동을 몰아갔다. 1948년 이후 이승만 정부는 겉으로는 양갈보 배척 운동을 경계하면서 속으로는 한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¹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양갈보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에 등장한 ‘유엔군’과 ‘유엔’은 남한 정부의 구원자이자 수호자를 의미하는 언어적 기표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유엔’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여럿 나타났다. 유엔군과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일컬어 ‘유엔 마담’, ‘유엔 사모님’ 또는 ‘유엔 공주’라 하였다. 양갈보가 유엔 마담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외화를 획득하는 돌격대’ 역할이었다. 전시에 미군 혹은 유엔군을 상대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은 비록 성매매 일지라도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었다고 말한다. 당시 언론에 투영된 양공주의 이미지 역시 한국전쟁의 수호자이자 남한 정부의 강력한 후원자인 미군을 위안하고 외화를

12) 김현숙, 「민족의 상징, ‘양공주’」, Kim, Elaine & Chungmoo Choi, *Dangerous Women*,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223쪽.

13) 『경향신문』, 1948.12.24.

14) 『동아일보』, 1949.06.17.

벌어들이는 ‘애국자’였다.¹⁵⁾

특히 1950년 9월 인천상륙 작전 이후 미군은 낮은 서양인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수호자이자 시혜자로서의 이미지가 덧씌워졌다.¹⁶⁾ 미군과 유엔군을 상대했던 양공주를 바라보는 담론은 사적 영역에서는 성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바 걸’ 혹은 ‘호스티스’였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달러와 성을 교환하는 ‘특수 엔터테이너’ 또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양쪽에서 후원과 동시에 규제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양공주에게 덧붙여진 대중적 이미지는 성적 타락이라는 오명과 소비 자본주의의 침범이라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양공주가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미군을 즐겁게 해주는 수단으로 바라보았다.¹⁷⁾

한국전쟁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기지촌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부산에 미군과 유엔군을 위한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인근 마산에도 5개의 위안소가 들어섰다. 1951년 부산에 위안소 74개소와 유엔군 전용 댄스홀 5개가 허가되었을 정도로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위안소가 만들어졌다.¹⁸⁾ 기지촌에서는 대대적으로 집창촌이 형성되어 양공주가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성병 검진을 명목으로 이들을 관리하였다.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병 검진은 1954년 2월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957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¹⁹⁾ 기지촌이 국가안보 혹은 경제성장의 기표(記標)라면, 양공주가 몸을 파는 공간은 전쟁과 가난의 참혹한 삶을 대변하는 기의(記意)였다.²⁰⁾

기지촌 여성으로 대변되는 양공주의 공식적 호명은 기지촌 ‘위안부’였다. 1950년대 양공주는 전쟁의 파생물, 지원자, 희생양 혹은 전염체로 간주되었다. 양공주의 사회적 정체성은 ‘민족을 배신하고 타락한 존재’ 혹은 ‘외세에 짓밟힌 힘없는 민족의 분신’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있었다.²¹⁾ 한편 한국전쟁

15) 『경향신문』, 1952.04.07.

16) 김준현, 앞의 논문, 43쪽.

17) Moon, Katharine H. S., *Sex among Allies*,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21쪽.

18) 김윤지, 앞의 논문, 102~103쪽.

19) 박정미, 2015, 11쪽.

20) 이나영, 2007b, 34쪽.

이 휴전으로 일단락되면서 미군 접대부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53년을 기점으로 언어 사용 빈도가 ‘유엔 마담’에서 ‘양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²²⁾ 즉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적인 유엔 마담에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인 양공주로 호칭이 격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공주는 미군의 정식 부인으로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양부인’부터 허름한 판자집에서 기거하는 ‘양갈보’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인 차이와 등급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윤리적 잣대로 양공주가 상대하는 남성의 숫자에 따라 ‘정숙파’, ‘팔방미인파’, ‘마구잡이파’로 구분하기도 하였다.²³⁾

기지촌의 양공주가 다양한 역학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공간이 비의도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포로수용소 주변에서 양공주가 몸을 팔았던 공간은 국가의 주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일종의 예외적 상태에서 발생하고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로수용소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양공주가 몸을 파는 공간에서 한국군 혹은 한국인 ‘남성’은 배제되었다. 기지촌이 이질적이며 위계적인 두 남성문화의 주체들이 양공주의 몸을 매개로 만나는 곳이자 충돌하는 장소였다면, 포로수용소 주변에 형성된 양공주가 몸 파는 곳은 미군(남성)과 양공주(여성)가 오로지 성을 매개로 조우하는 지점이었다. 전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고정적인 장소였다면, 후자는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유동적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거제도 포로수용소 인근의 양공주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1951년 1월 20일 설치되어 1954년 1월 5일까지 운영되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근무했던 미군 숫자는 포로 분산 이전과 이

21) 박성은, 「전쟁의 피해자, 가족의 희생자 미군 위안부」, 『여성과 평화』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0. 188쪽.

22) 김준현, 앞의 논문. 54쪽.

23) 『동아일보』, 1955.08.18.

후가 크게 다르다. 1952년 6월 기준으로 장교 649명, 하사관 74명, 사병 13,125명으로 총 13,848명이었다.²⁴⁾ 포로 분산 이후인 1953년 2월 기준으로 행정요원 장교/하사관 137명, 사병 1,564명, 그리고 헌병대의 장교/하사관 129명, 사병 3,003명으로 총 4,83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²⁵⁾ 미군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분으로 1951년 9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포로수용소 근무를 교대시켰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독봉산을 가운데 두고 현재의 고현동, 수양동, 장평동, 상문동, 연초면 일대에 들어섰다.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고현출장소 관할이었던 장평, 와치, 용산, 문동, 양정 마을과 장승포읍의 수월, 해명, 처산(제산), 그리고 연초면의 임전, 송정, 연사 등이 포로수용소의 배후지 마을이었다. 애초 포로수용소는 가능한 주민들의 거주지를 훼손하지 않고 들판과 구릉을 이용하여 건설되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 주변에는 민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았다.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연초면 관암 마을과 연중 마을 들판에 '양키시장'이 형성되었다. 사곡 다리 부근에도 양키시장이 들어섰다.²⁶⁾

포로수용소 주변으로 양공주들이 몰려들면서 배후지 마을에는 양공주가 넘쳐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난민 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연초면 일대의 양키시장이 양공주들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양키시장을 기지로 삼았던 양공주들은 도회지 풍의 외양을 갖춘 별도의 시설에서 공공연한 형태로 영업하였지만, 포로수용소 주변 마을에 자리를 잡았던 양공주들은 개별적 혹은 음성적인 형태로 활동하였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일대에서 활동했던 양공주는 많았을 때는 3,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²⁷⁾ 미군 부대가 위치했던 '열마지기 골'을 비롯한 포로수용소 주변에는 '양공주'가 들끓었으며, 지역 청소년들은 포로수용소 캠프에 고용되어 '양아치 소리'로 둔갑하였다.²⁸⁾

24)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90쪽.

25) 조성훈, 위의 책, 273쪽.

26) 거제시지편찬위원회, 『거제시지』, 2002, 654쪽.

27) 손영목, 『거제도(1)』, 동서문화사, 2006, 115쪽.

28) 박태순, 『거제도의 6·25 그 전쟁범죄』, 『사회와 사상』 1989년 6월호, 1989, 194쪽.

“개판이지. 왜냐하면 요기 가정집들이, 촌에서 소 마구간에 다 방을 냈어. 사람도 아니지. 전방에서 교대로 오면, 가스나가 방 안에 있으면 말이지. 양갈보 장사하든, 미군들 계급 불구하고 순서대로 착착 줄을 섭니다. 아들이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앞에서 빨리 만나오면, 빨리 나오라고. 나오면 뒤에 놈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들어가.... 근데 그놈들이, 장교들도 말이지, 일을 치다가 엠피(MP) 온다 카든, 옷벗고 다 도망칩니다. 헌병이 온다카든 옷을 들고 다 도망갔지.... (양공주는) 한국 사람이 어디서 데꼬 오는지, 장사꾼 떡대가 데꼬 와가지고, 방 있으면 방마다 세를 얻어가지고, 피난민도 많이 했지. 피난민도 못먹고 사는데. 요 사람들이 장사를 전문적으로 그래 하는데. 전방 부대가 한번 내려오면, 그날 저녁에는 수 십명이 줄로 서가지고.... 몇십명씩. 그 뭐 사람도 아니지.”²⁹⁾

지역주민들의 기억 속의 양공주는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 여성이었다. 호칭 역시 ‘양공주’와 ‘양갈보’가 뒤섞여 있었다. 양공주는 대개 피난민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전쟁 중에 남편을 잃거나 피난 중에 혼자가 되어 거제도까지 내려왔던 사람이었다. 피난민들이 배급식량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미군들을 상대하는 ‘하우스걸’로 취직했다가 나중에는 더 별이가 좋은 양공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구술자들은 지역주민 중에서 양공주가 된 사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외지인과 달리 지역 사람들은 못 배우고 어리석고, 순박하지만, 체면과 삼강오륜이 있어 양공주를 큰 죄라고 여겨 누구도 몸을 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당시 포로수용소 주변 마을에는 미군이 젊은 여성을 겁탈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미군이 나타나면 동네 처녀들은 함부로 나다니지 못했다고 한다.³⁰⁾ 하지만 피난민들은 이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이곳에서는 자신들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여겨 부끄러움이나 체면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공주들은 대개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포주를 따라 몇 명씩 무리를 지어 매춘업에 종사하거나 독자적으로 거처를 마련하여 단독

29) 윤충렬(남, 1932년생, 거제 고현 상문 출신)의 구술내용. 구술자료는 이승철씨가 2003년 10월 26일 녹음했던 자료(DV208)를 녹취하였다.

30)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한국전쟁 65주년 거제도 피난민 유입과 소개』, 2015, 146쪽.

으로 ‘영업’하였다.

양공주는 주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팔았다. 일정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는 양공주는 몸에 모포를 걸치고 다니다가 미군을 만나면 산 밑 으스스한 곳에서 몸을 팔고 화대를 받았다. ‘모포 부대’라 불렸던 양공주가 미군과 성교하는 장면은 마을 아이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화목용 땔감이 부족해지자, 마구잡이로 나무를 벌채하면서 민가 인근의 모든 산은 벌거숭이가 되었다. 산에 나무가 남아 있지 않아 멀리서도 누가 무엇을 하는지 쉽사리 눈에 들어왔다. 심지어 양공주들은 마을 인근 개울가나 노천에서도 몸을 팔았다. 소개령으로 포로수용소 주변 마을이 철거되기 전에는 양공주들이 가정집에 세를 들거나 외양간을 고쳐서는 그곳에 기거하면서 몸을 팔았다. 양공주의 화대는 1달러였지만, 많게는 3달러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1951년 무렵 양정리 저산 마을에는 80여 호, 중통 골에 20여 호, 그리고 수월에도 80여 호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임시로 연초에 정착했던 피난민 중 일부가 포로수용소 인근의 양정리와 수월리로 이주해왔다. 마을 주민들은 피난민들에게 소 마구간과 돼지우리를 개조하여 방을 만들어 거주하게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애초 피난민에게 제공하려고 임시로 만들었던 방을 양공주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양공주들은 방세로 달러를 주거나 미군에게 받은 통조림과 화장품, 커피, 우유, 빵, 비누 등을 집주인에게 주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달러가 보편적인 화폐였다고 한다. 이들이 미군으로 상대로 벌어들이는 달러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엄청났다고 한다.

1952년 5월 7일 돛드 포로수용소 소장 납치 사건 이후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주변 마을은 모두 철거되고 주민들은 소개되었다. 포로수용소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에는 경비 초소가 있었다. 경비 초소 입구 아치에는 ‘M.P’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지역주민들은 경비 초소를 ‘엠펜피’ 초소라 불렀다. 소개 이전에는 MP 초소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소개된 이후부터 헌병이 출입을 통제하였다.³¹⁾ 엠펜피 초소는 3곳으로 연초

31)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위의 책, 142쪽.

입구, 장평 고개, 삼거리 고개에 있었다. 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 연초는 동쪽, 장평은 서쪽, 삼거리는 남쪽으로 나가는 길목이었다. 포로수용소의 북쪽은 바다였다. 양공주들은 미군 경비 초소 부근에 많았다고 한다. 양공주가 많은 곳에서는 미군들의 행패가 끊이지 않았다. 포로수용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소개되면서 양공주들도 같이 쫓겨났다. 양공주들은 미군들이 자주 드나드는 소개민 수용소 인근 마을 혹은 피난민 수용소 근처로 거처를 옮겼다. 양공주들의 집거지는 연초면 죽토리 효촌(효자문) 일대를 비롯하여 연사리와 오비리, 그리고 사등면 사곡리 등지였다. 그중에서도 소개민과 피난민이 많았던 지금의 연초면 연사리 임전 마을 앞 천변과 연사리 근처 산 아래가 주요 거처였다. 어떤 곳에서는 한 명의 포주 아래 30여 명의 양공주가 영업하기도 하였다.³²⁾

미군들은 연초 개울을 건너야만 양공주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개울까지 물이 올라와 옷을 버리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었다. 이곳에서 미군들을 업어 나르는 신종 직업이 생겼다. 옷을 적시지 않고 개울을 건너려는 미군을 등에 업고 건너는 일이었다. 미군을 업어서 개울을 건네주는 대가는 한 명당 1달러였다.³³⁾ 거제도 서쪽에서 연사리로 들어가려면 피술 마을을 거쳐야 했다. 피술 마을은 미군 부대 위쪽에 있어 민간인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양공주들은 목선을 이용하여 바다를 통해 연사리로 드나들었다. 피술 사람들을 양공주들을 연사리로 실어다 주거나 실어 오면서 비용을 받았다. 간혹 미군 헌병이 나와 검색을 하면 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헌병이 사라지면 내려오곤 했다고 한다.

미군 중에는 영외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영외 거주 미군과 양공주가 살림을 차리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살림'이란 양공주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몸을 팔던 상태에서 특정한 한 명으로 상대가 고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미군과 살림을 차린 양공주는 군용 물품이 많았다고 하였다. 한

32) 배종엽(남, 1930년대 출생, 거제 고현 출신)의 구술내용. 구술자는 고현 남은 박 출신으로 포로수용소의 289 수송대에 근무하였다. 이승철, 『6.25전쟁과 그때 그 시절』, 거제향토사연구소, 2018, 193쪽.

33)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145~146쪽.

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동거하는 일종의 계약 살림이었다. 간혹 미군과 정식으로 혼인한 양공주도 있었다고 하였다. 양공주와 미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주민들이 아이를 돌봐주고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아이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우유를 먹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양공주는 영아를 몰래 생매장하는 사례도 있었다.³⁴⁾

당시 신문에도 양공주를 ‘외화획득녀’, ‘UN군 접대부’, ‘여급’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양공주를 외화벌이에 나선 여성,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접대부 혹은 여급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거제도에서 유엔군을 상대로 몸을 팔다가 진해로 직장을 옮겼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당시 진해에도 유엔군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살 나이의 양공주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았다가 생계를 위해 신생아를 생매장하였다. 그녀가 ‘UN군 접대부’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생매장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유엔군 혹은 미군이었을 개연성이 크다.³⁵⁾ 친모와 공모했다는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십대 후반의 딸이 접대부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전쟁의 외중에 굶주림을 덜고자 딸을 희생시켰던 ‘평범한’ 가족 혹은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였다.³⁶⁾

양공주의 숫자가 대규모로 늘어나자, 지역에서는 양공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매춘부’, ‘유녀’로 불리는 양공주는 마치 질병을 퍼뜨리는 세균처럼 ‘퇴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즉, 양공주는 ‘외부’에서 들어와서는 도깨비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지역사회의 풍기를 문란케 하는 존재인 양 취급하였다.³⁷⁾ 미군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에는 ‘홀’이라 불리는 큰 집이 있었다. 홀은 여자와 술을 파는 공간이었다. 연초, 사곡, 양정 등지에 양키 시장이 형성되면서 ‘댄스 홀’이 들어

34) 『마산일보』, 1952.03.05.

35) 혼혈아 특히 흑인 혼혈아는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인 양공주까지 하층계급으로 전락된다는 점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존재였다. 변화영, 「한국전쟁의 문신, 흑인혼혈인과 양공주」,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96쪽.

36) 박성은, 앞의 논문, 191쪽.

37) 『마산일보』, 1951.09.13.

섰다. 댄스 홀에는 간혹 춤을 잘 추는 한국군도 출입하였다고 한다. 미군 경비대가 있는 부근마다 양공주와 댄스 홀이 성행하였다. 양공주들이 미군들로부터 돈(달러) 대신 화대로 혹은 선물로 받았던 커피, 우유, 빵, 비누 같은 물품들이 양키시장으로 흘러나왔다. 포로수용소의 철조망 안에서 바라보았던 포로들의 눈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군들에게 몸을 파는 양공주의 모습은 이중적이었다. 포로들은 한편으로는 철조망 바깥에서 미군과 돌아다니는 양공주를 보고 희롱을 하거나 욕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난민이 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가련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³⁸⁾

1952년 5월부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집중되어 있던 포로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 수용하였다. 대규모 수용동에 밀집되어 있던 포로들을 소규모 단위 포로수용소로 분산시키는 ‘소산 작전’은 1952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포로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분리 수용되었다. 송환 희망자 또는 ‘친공’ 포로들은 거제시 남부면의 저구리 포로수용소, 통영시 한산면의 용초도 포로수용소 및 봉암도 포로수용소와 같이 섬 지역의 포로수용소에 수용하였다. 송환 거부자 혹은 ‘반공’ 포로들은 부산, 대전, 광주, 논산 등 육지에 마련된 포로수용소로 이전시켰으며, 중국군 포로들은 제주도로 이송되었다. 1952년 9월 8일 기준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44,149명만 남게 되었다.³⁹⁾ 포로수용소가 분산되면서 미군들이 이동하자 거제도 포로수용소 주변의 양공주들도 자연스럽게 분산되었다.

4. 저구리 포로수용소 인근의 양공주

‘저구리 포로수용소’는 1952년 6월 설치되어 1953년 10월까지 운영되었다. 195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저구리 포로수용소에는 미군 행정요원 장교/하사관 16명, 사병 200명, 헌병대 장교/하사관 2명, 사병 80명 등 총 298명

38) 송관호, 『전쟁포로, 송관호 6.25 전쟁수기』, 김종운 편, 눈빛출판사, 2015, 148~149쪽.

39)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앞의 책, 134쪽.

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카투사 51명, 한국군 843명이 주둔하였다.⁴⁰⁾ 저구리 포로수용소가 설치된 지역은 저구리를 비롯하여 인근 명사 마을과 다포 마을 세 곳이었다. 저구리는 거제도의 남서쪽 끝단으로 지리적으로 평지가 아주 협소하고 험준한 산과 바다로 막혀 있어 다른 지역으로 왕래가 어려운 곳이다. 저구리 포로수용소의 배후지는 다대 마을과 근포 마을이었다. 명사 마을 사람들은 근포로 소개되었다. 저구리 주민과 다포 주민들이 다대 마을로 소개되면서 이곳은 포화상태가 되었다.

저구리 포로수용소 주변에서 몸을 팔았던 양공주들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여성들 혹은 가족은 있지만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처지에 내몰렸던 사람들이었다. 삶의 장소를 박탈당하고 기존의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고립된 여성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생활을 해야만 했다. ‘파마머리’에 ‘양장’을 하고 있었던 양공주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였다. 올림머리에 비녀를 꽂고 다녔던 지역 여성들과는 차별되는 외모였다. 양공주들이 늘어나면서 저구리 포로수용소 주변에는 양공주가 영업하는 고정적인 장소가 세 곳 형성되었다. 그중 한 곳은 다대 신촌에서 저구리로 넘어가는 산기슭이었다. 이곳은 다포 수용동 길 건너편으로 다포 수용동은 물론 저구 수용동과 명사 수용동에 근무하는 미군들이 접근하기 수월한 지점이었다. 바로 옆에 다대 마을이 있어 양공주들이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미군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물품들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었다.

주거 공간이 열악했던 포로수용소 인근에서는 소개민과 양공주가 서로 ‘협업’하는 방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지리적으로 격리된 저구리 포로수용소 주변에는 양공주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였다. 반면 소개민들은 보급받은 식량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었다. 소개민과 양공주가 서로가 서로에 기대는 전략으로 고단한 삶을 마주하였다. 소개민들은 양공주에게 거처할 공간을 제공하고 양공주는 그 대가로 미군들에게 받았던 물품이나 돈을 방세로 지불하였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업자들은 양공주를

40) 조성훈, 앞의 책, 273쪽.

여러 명을 두고 영업하였지만, 소개민들은 소수의 양공주와 함께 기거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전쟁으로 난민 신세가 된 양공주와 소개민이 서로에 의존하여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했던 셈이다. 양공주는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고, 소개민들은 양공주를 통해 일정 부분 재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양공주는 사회적으로 일상을 함께 하기에는 불편한 존재였지만, 일부 주민들에게는 생계를 보조해 주는 중요한 존재였다.

지역주민들이 '아리랑 고개'라 불렀던 다대 신촌 위쪽 오르막에서 술을 팔고 몸도 파는 양공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양공주들은 헛간을 고쳐 방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다른 집에 세를 들어 살기도 하였다. 미군들을 상대하기 위해 낮에는 담요를 가지고 인근 야산으로 들어가 몸을 팔기도 하였다. 방이 모자랐던 소개민들은 다대 신촌에서 다포 수용동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판자와 나뭇가지로 둘레를 막고 지붕에는 억새와 같은 풀을 덮어 가건물을 마련하였다. 이곳에서 소개민들은 양공주와 함께 기거하면서 성매매업을 하였다. 구술자들은 당시 이곳에서 '양갈보 장사'를 하는 곳이 10여 채가 넘었다고 기억하였다. 대개 한 집에 양공주 3~4명을 데리고 있었다. 양공주가 받았던 화대는 1달러였다고 하였다.⁴¹⁾

다대 신촌에서 '양갈보 장사'를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소개민이었지만 대개는 외지 사람이었다. 다대에는 미군과 살림을 차린 양공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카바레나 술집이 따로 없었다. 생계 수단이 열악했던 소개민들은 자신들의 움막 같은 거처를 쪼개어 일부 공간을 양공주에게 내어 주었다. 소개민 중에는 '양갈보 장사'를 하면서 미군을 대상으로 술도 팔았다고 한다. 양공주를 찾아오는 미군들은 아이들에게 가끔 우유나, 과자 등을 주었다. 깡통에 든 과자가 아주 맛있었다고 기억하였다.

“해먹고 살게 없어서. 다대 신촌 내리가면 이런 집을 지어가꼬 보리박구(박스) 집을 지어가꼬 양갈보 장사를 했어. 엄마가. 식구가 전부 있었는데. (양갈보) 하나 있었는데. '조치원'이라고. 조치원에서 왔다고 참 나

41) 이승철, 앞의 책, 152~153쪽.

이가 많더라고. 이름이 조치원이 아니고, 그 어머니. 이름을 안 부르고 우리가 '조치원', '조치원' 이래 했거든. 그레가꼬 하다가 순경이 왔는데, 다대 지서 주임이 왔는데, 조치원 저년이 미국놈을 하면 돈을 주는데 순경이 하면 돈을 안주거든. 그란께는 안 받아주는기라. 그란께는 우리 아버지를 내려 오라 하더만은 순경이 잡아 가버렸어. 앙심을 딱 묵고. 내려 오라카드라고 우리 아버지를. 할 일이 있다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지서로 오라 카드라고. 그래서로 우리 아버지가 갔는데... 그뒤로 흔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로 알아본께는 보국대로 데꼬 가버렸어. 그 앙심(앙심)으로... 그 여자, 조치원 그 여자가 하룻밤 안재워 줬다고"⁴²⁾

위 구술자는 '조치원'이라 불렀던 양공주 때문에 아버지가 보국대에 끌려갔다고 푸념하였다. 어느 날 다대 지서의 주임이 '조치원'을 찾아왔다고 한다. '조치원'은 미군을 상대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은 화대를 주지 않아 상대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며칠 뒤 지서 주임이 아버지를 호출하였다. 지서 주임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부르다기에 다대 지서로 내려갔던 아버지는 그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한참 뒤에야 '조치원' 사건으로 앙심을 품은 지서 주임이 아버지를 보국대로 보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계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양공주 장사에 달려 있었다. 양공주 장사로 방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나이 든 딸들이 미군이 드나드는 집에 함께 기거하는 것을 꺼렸던 어머니는 식구들을 다대 너머 오송리로 보냈다. 오송리의 입구 '오신장' 길 아래 대밭 속 빈집에다 할머니와 언니, 그리고 구술자를 이거시켰다. 구술자는 한여름 대밭 속 빈집에는 모기가 엄청나서 한숨도 못 잤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근포 마을 입구에도 '아리랑 고개'가 생겼다. 근포 마을에서 오르막길로 올라와서 명사로 넘어가는 산모퉁이 고개이다. 이곳은 명사 포로 수용동과 가까운 곳이다. 다대 신촌의 '아리랑 고개'와 달리 이곳에는 안정적인 거처가 없었다. 포로수용소 설치로 육로가 막히면서 주민들마저 해로를 이용하여 타지로 드나들었을 정도로 외지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한 곳이었다. 당시 거제도 중심부에서 근포까지 오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음에도 양공주들이

42) 양○자(여, 1940년생, 남부면 저구 출신)의 구술내용.

득실거릴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주로 인솔자가 양공주들을 데리고 와서는 장사를 시켰다고 한다. 인솔자는 외지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지역주민도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인솔자 중 한 명은 명사 출신 양○○으로 영어를 조금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하였다. 일부 양공주는 명사 포로 수용동과 가까운 곳에 움막을 지어놓고 몸을 팔거나 세탁을 해주고 돈이나 물품을 대가로 받았다. 움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움막촌이 형성되었다.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신촌’이라고 불렀다.

양공주들이 미군들에게 몸을 팔았던 공간은 근포 마을의 북쪽 바닷가에 있는 땅굴이었다. 민가와 떨어진 북쪽 해변에 미완성 땅굴을 비롯하여 땅굴이 다섯 개 있었다. 모두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포진지를 설치하려고 해안 절벽을 굴착하다 해방이 되면서 중단된 채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 한다. 양공주들은 모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근포 마을과 동떨어진 이곳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에 땅굴 주변을 기웃거리다 곳곳에서 사용하고 버린 콘돔을 발견했다고 한다. 양공주 중에는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온 홀어미도 있었다. 양공주의 딸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소개민 학교에 다녔다.

저구리 포로수용소 위쪽에서 탐포로 이어지는 길가 고갯마루도 포로수용소에서 흘러나온 물품을 교환하고, 양공주가 몸을 파는 장소였다. 고갯마루 공터에 일종의 ‘난장’이 형성되었다. 이곳에서 미군과 잡상인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물물 교환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양공주들은 미군을 기다리며 진을 치고 있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저구리 포로 수용동과 가깝지만,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와야 하는 곳이다. 또한 배후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양공주나 장사꾼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처지가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른 두 곳에 비해 이곳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간이었으며, 양공주들이 항상 머무는 고정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저구리 포로수용소 주변에서 영업했던 양공주들은 대개 인솔자를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인솔자 없이 개별적으로 영업하였다. 소개민 중 일부는 양공주를 데리고 포주 노릇을 하면서 미군들의 물품을 팔기도 하였다. 구슬자들은 양공주가 학력이 높았으며, 고등학교를 갓 마친 앳된 처녀들이 많았다고

기억하였다. 어떤 양공주는 통역관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였다. 구술자들은 양공주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방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강조하였다. 전시라는 예외적 상태에서 조우했던 낯선 피난민 혹은 이방인 양공주와 생활 근거지에서 쫓겨났던 소개민들은 비밀상의 공간에서 따로 혹은 같이 살아야만 하였다.

5. 용초도·봉암도 포로수용소 인근의 양공주

한국전쟁 당시 지금의 통영시 한산면 용호도와 추봉도에 포로수용소가 있었다. 1952년 6월 용호도에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추봉도에는 '봉암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다. 봉암도 포로수용소는 1953년 10월 폐쇄되었지만,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귀환국군포로 집결소로 이용되면서 1954년 3월까지 유지되었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된 곳에는 포로들을 관리하기 위해 미군 부대가 정주하였다. 주둔 미군의 규모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포로수용소 건설 초기에는 공병대, 항만수송부대, 헌병대가 투입되었다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부터는 미군 행정요원과 헌병대가 주둔하였다. 포로수용소 경비는 한국군이 투입되었다. 195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용초도 포로수용소에는 미군 행정요원으로 장교/하사관 15명, 사병 212명으로 총 227명 근무하고 있었다. 봉암도 포로수용소에는 미군 행정요원 장교/하사관 15명, 사병 207명과 헌병대 장교/하사관 2명 및 사병 25명으로 총 24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포로수용소 두 곳에 근무했던 미군은 총 476명이었다.⁴³⁾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용호도에는 용초 마을과 호두 마을이 있다. 용초 마을 주민들은 소개되었지만, 용호도의 동쪽 끝머리의 호두 마을 주민들은 그대로 남았다. 용초 마을과 호두 마을 중간 돌출부에 용호국민학교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진바리' 혹은 '진발치'로 불렀던 이곳은 한산도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봉암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추원 마을과 예곡 마을 주민들 역시 소개되었지만, 추봉도의 양끝단에 자리한 봉암 마을과 곽

43) 조성훈, 앞의 책, 273쪽.

룡포 마을 주민들은 소개되지 않았다. 봉암도 포로수용소 양쪽에 있는 두 마을은 가파른 산으로 가로막혀 있다. 곡룡포 마을에는 소개민을 위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봉암 마을 북쪽 ‘치끝’ 혹은 ‘나루선치’에서 나룻배로 한산도 진두로 오갈 수 있었다.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용초 마을에는 1952년 6월 9일 미군 공병대가 도착하였으며, 7월 10일부터 포로들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⁴⁴⁾ 하지만 공병대가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이미 미군들이 마을 앞 바다에서 수중 탐사를 하였다. 미군 공병대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색시’들을 찾아다녔다.

“미군들이 들이닥친 첫날부터 색시들이 있나 싶어서 가정집에 들어와 찾는거야. 아마 ‘양공주인가(이고 싶은가)’ 하고 손짓 발짓 해가며 물어보는데 섬 촌 아낙네들이 말이 통해야 ‘난 아닙니다’ 하고 답하제. 도통 말이 안 통하니 겁을 먹는기라. 생전 못 보던 코 크고 키 크고 털난 사람들이 들이닥쳐 뭐라고 왈왈왈 하는 데 촌 여자들이 겁을 안내? 그래서 여자들마다 방문을 잠그고 도망다녔는데, 그때 이 마을에 해녀들이 열대여섯 명 일을 하고 있었거든. 해녀들은 모두 파마를 하고 있었어. 미군들은 해녀들을 보고 동네 일반여자들과 머리 형태가 다르니까 양공주인 줄 알았나봐. 자꾸 해녀들에게 달려드는 거야. 여자들 앞에서 미군들이 자기 아랫도리를 만지면서 ‘씨비 씨비’ 하는 거야.”⁴⁵⁾

마을 사람들이 미군들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언어 문제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뒤늦게 한국인 통역관이 나타나, 이곳에 파견된 미군들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후방으로 파견되었으며 그래서 여자들을 보면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통역관의 말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급히 마을 여인들을 마을 바깥으로 피신시켰다. 마을 바깥으로 나간 여인들은 한동안 낮이면 용초 마을에 돌아와 밥을 짓고 가사를 돌보다가 해가 떨어지면 곧바로 이웃 섬으로 피신하였다. 마을 여인들의 ‘피난’ 생활을 타개할

44)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냉전평화센터, 『통영 추봉도와 용호도 포로수용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2022, 55쪽.

45) 김○환(남, 1925년생, 한산면 용초 출신)의 구술내용. 오연호, “특별포로수용소 용초도”, 『월간 말』 90(9), 1990, 127~128쪽.

방안으로 외부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을 데려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곧 바로 마을 사람 한 명이 충무(지금의 통영시)에서 몸 파는 ‘아가씨’들을 데려왔다. 아가씨들은 인근 섬에 거처를 마련한 다음, 미군 보초의 호위 아래 출퇴근하듯이 마을에 드나들었다. 몸 파는 아가씨들이 들어오면서 마을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⁴⁶⁾ 하지만 미군과 아가씨들이 아무 곳에서도 엉겨 붙으면서 마을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아가씨들은 담요를 가지고 다니면서 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몸을 팔았다. 가끔 동네 가까운 곳에서 소란이 일기도 하였다. 어느 날 소란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자, 미군 2명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아가씨 1명이 담요를 둘러쓰고 벗은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곳에는 화대로 받았는지 양담배 1보루가 있었다고 하였다.⁴⁷⁾ 그렇게 20여 일이 지난 다음 포로들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포로들이 수용되자 몸 파는 아가씨들의 마을 출입이 금지되었다. 대신 미군들이 배를 타고 인근 섬으로 나가 몸 파는 아가씨들을 찾았다.

미군들은 거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을 찾아다녔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된 용호도와 추봉도 인근 마을에는 양공주들이 기거할 만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었다. 그나마 남아 있던 공간을 소개민들이 차지하면서 양공주들에게 내어 줄 방이 부족하였다. 몇몇 양공주는 인근 마을에 방을 얻어 놓고 기거하였다. 추봉도의 곡룡포와 봉암 마을에도 양공주가 들어왔다. 봉암 마을에는 양공주가 3~4명 있었다. 양공주는 마을에 셋방을 얻어 놓고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팔았다고 한다. 미군들은 주로 밤에 마을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곡룡포에도 양공주가 6~7명 있었다고 한다. 인술자가 따로 있었으며, 양공주는 네 집에 나누어 기거했다고 한다. 한국 군인 중에도 2~3명이 부인을 데리고 살림을 살았다고 한다. 구술자들이 기억하는 한국 군인은 ‘일등중사’였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의 부인을 ‘중사 각시’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시 곡

46) 마을 여인들의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공주의 매춘 행위가 필요하다고 간주되었다. 이런 현상은 전쟁 초기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이곳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반공창(半公娼)적인 형태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최길성, 『미군과 매춘부』, 이신법 옮김, 타입라인, 2021, 79~81쪽.

47) 오연호, 앞의 글, 128쪽.

룡포에는 술집이 3~4곳 있었다. ‘양갈보’로 불렸던 이들은 모두 ‘객지’ 사람이었다고 말하였다.

용초 마을 주민들이 모두 소개되면서 용초도 포로수용소 주변에는 거주공간이 사라졌다. 양공주들은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마주 보이는 비진도 내항 마을의 뒷등 외진 곳에 기거하면서 바다를 건너 양공주를 찾아오는 미군들을 상대로 영업하였다. 이곳은 주민들의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이었음에도 양공주들이 움막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기거하였다. 이들을 이곳으로 인솔하고 ‘보호’했던 사람은 마을 주민이었다고 한다. 용초도 포로수용소 인근 마을 호두는 수시로 찾아드는 미군들로 말미암아 마을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호두에는 포로수용소가 설치될 무렵 10여 명의 양공주가 인솔자를 따라 마을로 들어와서는 ‘영업’을 했다고 한다. 미군과 한국군이 호두 마을로 종종 넘어오기도 하였다. 어떤 양공주는 미군과 살림을 차리기도 하였다. 어느 날 부대에서 돌아오던 미군이 양공주가 세 들어 살고 있던 집의 아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미군은 마을 청년이 양공주를 넘보고 있다고 판단하고는 총을 들고 위협하였다. 청년은 담을 넘어 도망을치고 미군은 그를 붙잡으려 추격하였다. 그러자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느릿느릿한 말투로 “○○아 강냉이밭으로 숨어라. 잡히면 총살이다”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이 총을 든 미군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평소의 느릿한 말투로 아들에게 강냉이밭으로 몸을 숨기라고 외쳤던 아버지를 기억한다. 포로수용소가 설치된 이후 미군들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졌다. 호두 마을 자체를 소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마을 사람들은 미군들의 왕래를 차단하기 위해 포로수용소에서 호두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성벽을 쌓아 길을 막고 그곳에 초소를 설치하였다.⁴⁸⁾ 성벽과 초소가 설치되자 미군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양공주가 상주하고 있던 진두 마을로 드나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봉도와 용호도가 마주 보이는 한산도 진두에 양공주들이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한산도에는 입정포, 진두, 야소, 하포 마을 근처에

48) 한산면지편찬위원회, 『한산면지』, 1992, 786~787쪽.

4개의 소개민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산도 진두는 상대적으로 양공주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배후지가 넉넉했으며, 지리적으로도 포로수용소 두 곳에 근무하는 미군들이 드나들기 편리한 곳이었다. 양공주들은 '카바레' 혹은 '댄스홀'로 불렸던 공간을 거점 삼아 성매매업을 하였다. 카바레 건물은 소개민 수용소 맞은편 바닷가에 있었는데, '이북 피난민'이 지역민의 발을 빌려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카바레 건물은 작은 교실 크기였다. 이곳에는 밤마다 재즈 음악이 흐르고 양공주와 미군이 어울려 춤을 추었다. 댄스홀을 드나드는 고정 멤버가 있었을 정도로 미군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댄스홀 주변에는 미군들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이끌린 지역의 청소년들까지 모여들면서 야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흥청거렸다고 한다. 카바레 주변에서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온갖 물품이 거래되었다. 카바레 안과 바깥에는 항상 여러 명의 양공주가 대기하고 있었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양공주들의 하룻밤 벌이가 10달러였다고 한다. 현장에서 1달러를 1만 환으로 교환하였다. 주변에는 달러를 즉석에서 한국 돈으로 바꾸어 주는 암달러상도 있었다.⁴⁹⁾ 한산도 진두에 댄스홀이 생기면서 이곳을 드나드는 미군이 늘어나자, 선박을 이용하여 미군을 실어주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났다. 일부 주민들이 돈을 받고 미군을 진두까지 혹은 진두에 거주했던 양공주를 용호도 진바리까지 선박을 이용하여 실어다 주기도 하였다. 당시 봉암 치끝에서 진두까지는 1인당 1달러, 용호도 진바리에서 진두까지는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받았다고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미군의 정기 휴일이었다. 정기 휴일에는 야간에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이쪽 한산도에서 노를 저어 군인들을 실으러 가고 나중에 진바리로 실어다 주었다고 한다.

한산도에서 주민들이 조우했던 양공주의 처지는 제각각이었다. 홀몸으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여성도 있었고, 아이가 딸린 홀어머니가 있었는가 하면 나이 든 부모와 함께 피난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구술자들은 옷차림에서는 양공주와 지역주민이 쉽사리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특이했다고 기억하였다. 구술자들이 기억하는 양공주는 한편으

49) 김상현, 『통영 섬 어부이들의 밥벌이 채록기』,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1, 155~156쪽.

로는 일상의 윤리·도덕과 어긋나는 당혹스러운 존재로,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곳까지 와서는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측은한 모습이었다.

6. 맺음말

포로수용소와 함께 등장했던 포로와 미군, 피난민과 양공주는 전쟁을 표상하는 상징적 존재들이다. 낯선 양공주가 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풍속이 발생하였다. 양공주는 물리적으로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었다. 포로수용소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팔았던 양공주는 ‘방랑자’에 가까운 이방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방인 양공주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양공주가 머물렀던 공간은 기존의 마을이 아닌 소개민 수용소 혹은 피난민 수용소 주변이었다. 소개민 수용소와 피난민 수용소는 전통적 관습이 지배했던 기존의 마을과 달리 위계적 질서와 규범이 와해된 공간이었다. 피난민과 소개민, 그리고 양공주 모두 낯선 곳에서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아야 했다. 양공주와 소개민 혹은 피난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던 공간이 바로 소개민 수용소 또는 피난민 수용소 근처였다.

양공주를 처음 조우했던 거제도 포로수용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양공주를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양공주는 포주를 따라 들어와 집단으로 기거하거나 모포 하나를 들고 이곳저곳에서 개별적으로 영업하였다. 하지만 포로수용소가 분산되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 주변에 밀집되어 있었던 양공주들은 이동하는 미군을 따라 분산하였다. 주거 공간이 부족했던 저구리 포로수용소 주변에서는 소개민과 양공주가 함께 기거하면서 공생관계를 형성하였다. 한편 용초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용초 마을에서는 마을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도시에서 양공주를 데리고 와서는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주선하였다. 포로수용소 설치 이후 미군을 따라 들어왔던 양공주는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한 장소 혹은 공간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사회적 거리가 좁혀졌거나 허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양공주는 지역사회에 기거하고는 있었기에 완전한 외부자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내부자로 포섭될 수도 없었던 내부의 '타자'였다. 내부의 타자에게는 환대가 없었다. 양공주는 '타자'로서 내부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다. 피난민과 달리 새로운 '거점'이 없었던 양공주는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채 방랑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양공주의 '이동성'은 토박이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국외자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양공주는 직업의 특수성과 여성성으로 인해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다. 일상의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은 양공주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였다. 지역주민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양공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 혹은 감시하였다. 그들에게 양공주는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도덕성을 뒤흔들어 놓는 '위험한' 존재였다. 즉 지역사회에서 이방인 양공주는 이질적이면서 불안정한 존재였다. 양공주는 지역사회의 동질성을 파괴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방인의 세계'로 전환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양공주를 통해 자신들이 '이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거제도과 한산도 지역의 포로수용소들이 폐쇄되었다. 포로수용소가 폐쇄되고 전시 상황이 종료되자 한시적으로 개방되었던 이방인의 세계는 곧바로 닫혀 버렸다. 전시의 특수한 상황이 끝나면서 포로와 미군, 피난민 등 이방인 대부분은 떠나갔다. 양공주 역시 떠나야만 하는 이방인이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포로수용소는 흔적으로, 양공주는 기억으로만 남았다. 거제도와 한산도 주민들이 기억하는 양공주는 엄혹했던 전쟁 시기에 호구지책으로 몸을 팔았던 '외지'의 낯선 여성들이었다.

참고문헌

1. 사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마산일보』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한국전쟁 65주년 거제도 피난민 유입과 소개: 문헌 수집 및 구술사업』, 2015.

거제시지편찬위원회, 『거제시지』, 2002.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냉전평화센터, 『통영 추봉도와 용호도 포로수용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2022.

한산면지편찬위원회, 『한산면지』, 1992.

2. 논저

강경화, 「양공주의 자기인식 양상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 해방기와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강정구, 「아메리카니즘과 성매매 여성: 주요 전후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 우리어문학회, 2014.

김상현, 『통영 섬 어머이들의 밤별이 채록기』,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1.

김연숙, 「‘양공주’가 재현하는 영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연구』 3, 한국여성연구소, 2003.

김윤지, 「도구화된 타자, 기지촌 여성과 한국영화: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 여성을 다룬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14, 한국영화교육학회, 2013.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김준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 ‘유엔마담’과 ‘양공주’에 얽힌 대중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김현선 (편),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 아카데미, 2013.

김희식,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기원: 박정희 정권기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박선애, 「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

- 현대소설학회, 2004.
- 박성은, 「전쟁의 피해자, 가족의 희생자 미군 위안부」, 『여성과 평화』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0.
- 박정미,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주한미군 성병 통제 역사의 1950~1977년」, 『사회와 역사』 124, 한국사회사학회, 2019.
- _____,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 한국사회학회, 2015.
- 박종현, 「침묵의 디아스포라: 양공주와 혼혈아 재현방식」, 『기초조형학연구』 17(1),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 박종현·민병욱, 「분단 한국의 속죄양: 양공주를 바라보는 한국 사진의 시선」, 『기초조형학연구』 12(4), 한국기초조형학회, 2011.
- 박태순, 「거제도의 6·25 그 전쟁범죄」, 『사회와 사상』 1989년 6월호, 1989.
- 백일순, 「왜 미군 위안부는 잊혀져야 했는가?: 기지촌의 로컬리티와 기억의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 변화영, 「한국전쟁의 문신, 흑인혼혈인과 양공주」,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 손영목, 『거제도(1)』, 동서문화사, 2006.
- 송관호, 『전쟁포로, 송관호 6.25 전쟁수기』, 김종운 정리, 눈빛출판사, 2015.
- 오연호, 「특별포로수용소 용초도」, 『월간 말』 90(9), 1990.
- 오은엽, 「강신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양공주'의 형상화 연구」,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 이나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남한의 미군 정기 성매매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a.
- _____,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한국여성학회, 2007b.
- _____,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24(3), 한국여성학회, 2008.
- _____,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여성과 평화』 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0.
- _____, 「기지촌 여성의 경험과 윤리적 재현의 불/가능성: 탈식민주의 페미니

- 스트 역사 쓰기, 『여성학논집』 28(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1.
- 이승철, 『6.25전쟁과 그때 그 시절』, 거제향토사연구소, 2018.
- 임은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양공주' 모티브의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성」, 『한국문예비평연구』 5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 정근식·강인화·전갑생·김가람·이정훈, 『주한미군기지촌의 유산과 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2020.
- 정재림·「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 최길성, 『미군과 매춘부』, 이신범 옮김, 타임라인, 2021.
- 최정무·일레인 김 (편), Elaine Kim & Chungmoo Choi(eds), *Dangerous Women*,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 한만송,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국립민속박물관, 2018.
- 허 윤, 「1950년대 양공주 표상의 변천과 국민되기: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 Moon, Katharine H. S., *Sex among Allies*,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Abstract>

The *Yang gongju*(Foreigner's Whores) around
the POW Camps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Memories of the Residents
of Geoje-do and Hansan-do -

Park, Jeong Seok

The POW camps and the foreigner's whore(*Yang gongju*) are symbols of the Korean War. The foreigner's whore, who sold her body to the U.S. soldier, was a stranger close to a wanderer. Most of the spaces where foreigner's whore stayed were around the evacuated camp or the refugee camp rather than the existing village. The foreigner's whores who came i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je-do POW camp lived in groups or individually here and there. After the dispersion of the POW in the Koje-do POW camp, the foreigner's whore had also been dispersed along the U.S. soldiers. Around the Chogu-ri POW camp, where residential space was insufficient, the evacuated and the foreigner's whore lived together and formed a win-win relationship. In Yongcho village, where the Yongcho-do POW camp was established, *Yang gongju* was brought from a nearby city and arranged for the U.S. soldiers in order to protect the women in the village. With the closure of the POW camps, all strangers, including prisoners, U.S. soldiers, and the foreigner's whores, were left. In the passage of time, the POW camp remained as a trace, and the *Yang gongju* only remained as a memory. The residents of Geoje-do and Hansan-do remember that *Yang gongju* were unfamiliar stranger women who sold their bodies to the U.S. soldiers during the harsh wartime.

* Key Words: Korean War, *Yang gongju*(the Foreigner's Whore), POW Camp, Goeje-do, Hansan-do

· 논문투고일: 2024년 06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4년 07월 22일 · 게재결정일: 2024년 07월 25일

